

어르신들 기억치료 도움 받으세요 광양노인전문요양원에 벽화 기증

포스코플로우 감사나눔사업 중앙정원·외벽 등 3곳에 그려 진상면 섬거마을 이어 기증

국내 한 종합물류기업이 광양지역의 요양원에 어르신들의 기억치료를 돕는 벽화를 기증해 화제이다.

그 주인공은 서울 소재의 포스코플로우.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포스코플로우가 감사나눔사업으로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에 4천만원 상당의 벽화를 기증했다고 4일 밝혔다.

벽화는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요양원에 기증됐다. 기증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반돈호 포스코플로우 대표, 김재경 복지재단 이사장, 포스코플로우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 제막식, 감사패 전달, 벽화 그리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증된 벽화는 중앙정원과 외벽 2곳 등 3곳에 그려졌다. 기증된 벽화는 전문업체의 10일간의 작업을 통해 그려졌으며, 기증식 날 포스코플로우 임직원 20여명의 마지막 색깔 마무리 됐다.

4개 면으로 둘러싸인 중앙정원에는 폐쇄적인 공간을 다소 개방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벚꽃과 식물 등이 그려졌다. 또 외벽 2곳에는 어르신들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도록 추억을 담은 벽화



종합물류기업 포스코플로우가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에 4000만원 상당의 벽화를 그려 기증했다.

가 그려졌다. 포스코플로우 소속의 장애인 화가 2명의 작품을 참고해 기차와 배를 그리고, 옛날 교복 입은 학생들의 모습도 담겨져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벽화는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기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돈호 포스코플로우 대표는 “요양원 어르신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 벽화를 기증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벽화가 어르신들의 기억 치료를 돕고 과거를 추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

해 더욱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플로우는 지난달 16일에도 진상면 섬거마을에 5000만원 상당의 벽화를 기증해 시민들과 지역사회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섬거마을 벽화에는 마을 상징물인 두꺼비와 감(대봉) 그리고 동학운동 관련 그림이 그려졌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나눔과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벽화를 기증한 포스코플로우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벽화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일상 속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북내면 천연염색공예관에서 문을 연 '전남한복문화창작소' 내부 모습.

보성에 전남한복문화창작소 문 열었다

한복 염색·제작 교육 프로그램

국내 한복산업을 이끌어 갈 '전남한복문화창작소'가 보성에 탄생했다.

보성군은 지난달 29일 북내면 천연염색공예관에서 '전남한복문화창작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한복문화창작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공모사업에 보성군이 선정됨에 따라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이 사업은 한복 생산·전시·판매·체험 기능 등을 갖춘 한복 문화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고, 한복 문화 확산 및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3년간 10억원 을 투입하게 된다.

전남한복문화창작소는 한복 전시장·실습교육실

·아카이브실·미디어 영상실·한복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염색에서부터 한복 제작까지의 전 과정 교육과 후계자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라남도 박우욱 문화융성국장, 보성군 서형빈 부군수,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도의원, 김재철 도의원, 보성군의회 김경원 의장을 비롯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계자와 지역 한복인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 주요 행사로는 전남한복문화창작소 영상,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퍼포먼스, 한복 패션쇼 등이 진행됐다.

군은 전남한복문화창작소에서 다양한 전문문화 프로그램과 한복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한복의 매력을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행하며 게임 즐기고 상품도 타가세요

곡성섬진강기차마을

29일까지 챌린지게임 운영

곡성군이 연말을 맞아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주말과 휴일에 챌린지 게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챌린지 게임은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다. 기차마을 중앙광장에서 매주 주말과 휴일 오후 1시와 3시에 각각 1시간씩 진행된다. 총 47기 게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게임별 우승자에게는 상품이 지급된다.

이벤트는 먼저 몸풀기 게임인 '보물을 찾아라'로 시작된다.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몸풀기 게임이 끝나면 본격적인 게임으로 '흔들흔들 만보기', '협동 캐치볼', '막대를 잡아라'가 이어진다.

'흔들흔들 만보기 게임'은 온몸을 이용해 만보기틀 흔들며 최고 기록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동 캐치볼'은 참가자들이 고무공을 주고받

으며 바구니에 넣어 가장 많이 담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막대를 잡아라'는 이번 이벤트의 메인 게임으로 기계에서 무작위로 떨어지는 막대를 많이 잡아 참가자들 간의 순발력을 겨루게 된다.

챌린지 게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공식 인스타그램(gstrainvillage-official)과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gstrainvillag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섬진강기차마을은 국내 최대 기차테마파크로 총 면적이 24만㎡에 달한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곡성역사와 근대 증기기관차를 재현한 '미카 129'를 핵심 콘텐츠로 레일바이크, 미니 기차, 꼬마기차 등 다양한 기차 관련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전국 최다품종을 자랑하는 7만5000㎡ 규모의 1004 장미공원을 비롯해 요슬랜드, 4D 영상관, 생태학습관, 치치뿌뿌놀이터, 놀이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연간 6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큰기러기 무리에 섞여 먹이활동 중인 멸종위기종 흰기러기가 지난 1일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에서 관찰됐다.

멸종위기종 흰기러기 순천만서 발견... 조류 생태조사 이후 처음

흑두루미 무리 속 한 마리 관찰

길 잃은 멸종위기종 흰기러기 한 마리가 순천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순천시는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께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에서 흑두루미와 큰기러기 무리에 섞여 있는 모습이 탐조객에 의해 관찰됐다고 밝혔다.

순천에서 흰기러기가 관찰된 것은 지난 1996년 순천만 조류 생태조사가 실시된 이래 처음이며, 그간 충남·경기·경남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날 흰기러기 한 마리만 발

견된 것은 아마 철새 이동 중 길을 잃어 큰기러기 무리와 함께 이동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순천만에서 관찰된 흰기러기는 큰기러기와 함께 겨울을 지내고 내년 3월께 서식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흰기러기는 기러기목 오리과 조류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몸길이는 64~76cm이며, 몸 전체가 흰색이나 날개 끝은 검은색이다. 주로 알래스카, 북동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북아메리카에서 월동하며 국내에서는 기러기 무리에 섞여 소수가 관찰되는 희귀 조류다.

이번 흰기러기는 순천만 워킹 탐조 프로그램에

참여한 탐조객이 발견했으며, 그는 멸종위기종으로 국내에서 관찰되기 쉽지 않은 새를 발견했다는 것에 기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맨발로 걷는 탐사르길이 한국의 겨울철새 탐조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소리와 걸음을 결합한 순천만 탐조 여행에서 희귀철새를 만나는 행운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 탐조대에서 흑두루미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겨울철새를 80m 거리에서 근접 탐조가 가능하다. 탐조 프로그램은 7세 이상 회당 15명 선착순으로 순천만습지 누리집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함께하는 섬박람회 성공개최'

여수시, 자원봉사자 화합의 장

여수시가 관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를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 중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봉사자 격려와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동참을 독려했다.

시는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주제로 여수문화회 및 관내 일원에서 재능 나눔 힐링캠프,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여수문화회에서 자원봉사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헌한 33명 과 7개 단체에 우수 자원봉사자 상을 수여했으며, UCC(영상) 공모전 입상자에게 시상금을 수여했다. 또 문화회 앞 주차장에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마스코트 '다심이' 포토존을 운영하고, '1365 선순환 장터'를 열어 봉사활동 의미를 부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chkim@



고흥군 관계자들이 차량을 동원, 병원성 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총력

고흥군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3일자로 가금농장, 관련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철새도래지 등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및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사육 제한 대상이 아닌 가금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달 중 출하 예정인 오리 농가 3곳에 대해선 전담관을 활용해 농장 입구 앞 생석회 도포와 농장 자체 소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행정명령 및 공고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주말·휴일까지 반납하고 11개월간 작업 도서지역 법정구역 경계정비 끝내 뿌듯”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상 수상

여수시 중부출장소 김영대 주무관

“그간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했던 '법정구역 경계 정비 작업'을 발상의 전환과 방법의 변화를 통해 끝내게 돼 기쁩니다. 도중 힘들 땐 '내가 왜 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추진했던게 알찬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시원섭섭하면서 가슴 뿌듯하네요.”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지적관리팀 김영대(32·사진) 주무관이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김 주무관은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불일치한 '법정구역 경계' 전산자료를 자신이 직접 개선해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시 예산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지자체 최초로 담당공무원이 '오류자료'를 직접 정비하고, 막대한 예산까지 아끼게 된 모범적인 행정 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김 주무관은 섬 박람회를 대비해 섬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남면·화정면·삼산면 섬 지역에 대한 지적도 상 해안선 경계와 법정구역 경계를 일치시켜 관련 온라인 행정망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하는 작업을 지난 1월부터 시작해 11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마침내 마무리했다. 이 기간 그는 총 4000장(남면·화정면·삼산면 1440장, 돌산읍 및 지역 해안가 2435장)에 달하는 지적도와 연속도면을 정비했다.

그는 “법적효력이 있는 지적도(임야도)와 달리 법정구역 경계는 참고자료였기에 그간 주요 사안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하지



만 이번 작업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계 정보로서 민간·행정 분야의 기초정보로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작업의 의미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대민업무 특성상 별도로 시간 내서 정비작업을 하지 못하고 틈틈이 진행했고, 일감이 밀리면 주말이나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하곤 했다.

경계 정비 작업을 실행하는 데는 성실함 이외에도 세밀함을 요구했다. “섬 지역의 법정구역 및 행정구역 경계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시키는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랜디고'에서는 분리된 도형을 하나의 객체로 인식시키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김 주무관은 ‘왜 시작했을까’ 하는 한숨도 나왔지만, 자신의 대학원 시절 학습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 극복해 냈다고 한다.

그는 “대학원 수업 때 사용했던 프로그램인 QGIS를 활용해 명령어 및 기능을 숙지해 분리된 여러 도형을 하나의 객체로 인식시키는 것에 성공해 업무를 무난히 진행시킬 수 있었다”며 당시 순간을 되새겼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chkim@